

冠岳語文研究 第1輯

雙 釧 奇 逢 研 究

金 鎮 世

1976. 10

1. 序 言
2. 梗 概
3. 作者와 關聯된 問題
4. 새로운 體制的 模索
5. 指導階層의 少壯化
6. 結 語

雙鉤奇逢研究

金 鎮 世*

1. 序 言

李朝 後期の 作品으로 推定되는 이 「雙鉤奇逢」은 現在 昌慶苑 藏書閣과 國立中央圖書館에 各各 한 帙씩 傳해지고 있을 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稀本이다. 18卷 18冊이 한 帙이 되어 있는 昌慶苑 藏書閣本은 宮體의 筆寫本인데 各冊은 32.0×21.5cm의 無廓에 半葉이 11行이고 1行에는 19字~24字씩으로 되어 있다. 國立中央圖書館本은 19卷 19冊이 한 帙로 되어 있고 各冊은 29.2×19.5cm의 無廓에다 半葉이 9行乃至 11行이고 1行에는 18字~25字의 無定數로 되어 있는 宮體 筆寫本이다.¹⁾ 國立中央圖書館本은 古書의 뒷面에 筆寫한 것으로 군데군데 찢어진 곳을 다른 종이로 발라 놓았는데 그곳에 「大監宅 中醫 壹部 道干 伊 壹部 肝 壹部 千葉 壹部 己亥 七月 日 使喚奴子 萬旭 慶瑾 等伏呈」

* 서울대 人文大助教授(國文學專攻)

- 1) 金起東교수는 그의 「李朝時代の 小說研究」라는 著書에서 「이 作品은 天台山 人의 '朝鮮小說史'(p. 229)에 그 이름이 '雙川奇逢'으로 소개된 바가 있었는데, 현재 國立圖書館과 昌慶苑內 藏書閣本의 두가지 筆寫本이 있다. 藏書閣本은 18卷 18冊, 總 2326面, 每面 11行 每行 19字 내지 24字 平均으로 筆寫되어 있고, 國立圖書館本도 18卷 18冊으로 筆寫되어 있는 同一本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두 帙의 作品은 우선 卷數와 冊數가 다를 뿐 아니라 內容도 若干 다르다. 前者가 完備한 宮體인데 反해서 後者는 宮體에 間閻體(?)가 군데군데 섞여 있고 그 內容도 다르기 때문에 同一本이 아닌 異本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라는 記錄이 있음을 보아 어느 大監宅에서 筆寫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作品의 比較가 要請되나 이 問題는 後日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金台俊은 그의 「朝鮮小說史」에서 쿠랑의 書目을 引用하여 「雙川奇逢」이라는 作品名을 紹介한 바 있는데 이것은 이 「雙釧奇逢」의 「釧」字를 「川」字로 그릇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찌기 鄭炳昱교수가 「樂善齋本小說」이라는 이름으로 昌慶苑 藏書閣에 所藏되어 있는 李朝後期 小說을 紹介한 지가 十餘年이 지났지만 이 作品에 대한 研究는 전혀 없었다. 이 作品에 대한 言及을 굳이 찾는다면 筆者의 것²⁾ 뒤이어 있는 金起東교수의 것이 고작이겠는데³⁾ 그 까닭은 이 作品이 龍大한 것인데다가 貸出의 길마저 막혀 있다는 事實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藏書閣에 所藏되어 있는 李朝時代 한글小說의 大部分이 그렇듯이 이 「雙釧奇逢」도 그 作者와 創作年代를 아울러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現傳하는 筆寫本의 轉寫者가 누구이며 어느 때 轉寫되었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다.

筆者는 일찌기 「連作小說」이라는 말을 써 왔다.⁴⁾ 「洪吉童傳」이나 「九雲夢」 또는 「存香傳」과 같은 作品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그것들이 그 作品만으로 完結을 짓고 있지만 李朝後期의 長篇들은 作品마다의 表題는 다르지마는 그 內容은 主人公들의 代를 이어 가며 일어나는 事件들을 그린 家系小說이기 때문에 이러한 小說들을 「連作小說」이라고 내 나름대로 붙여 본 것이다. 그런데 이 「雙釧奇逢」도 그 末尾에

문경공 계조와 하람공 계조의 스겨이 더 괴롭호디 이 전이 더모 지리호나
별전은 난위 후벽에 전호리라 호고 너시세터록은 지어 흥문 등 췌매와 성문의

2) 文化財管理局 藏書閣：國學資料 第13號 1974. 2. pp. 1—4.

3) 金起東：李朝時代小說의 研究. 成文閣 1794. 9. pp. 170—176.

4) 拙稿：玄氏兩熊雙麟記 研究. 서울大學校 敎養課程部 論文集 第四輯 p. 97
拙稿：李朝連作小說 研究. 서울大學校 敎養課程部 論文集 第五輯 p. 69.

스형태의 스연과 경문의 본부모 좃던 일이며 허다 괴괴홀 스적이 세터록의 다
 즈시 잇느니라...中略...이 전이 곳쳐져 무미함미 세터록에 잇는 연고니 후인이
 세터록가지 누리 보와 괴괴홀 스적을 즈시 알라

라는 記錄이 있고 「李氏世代錄」이라는 作品을 보면 그 첫머리에

티명 정통 년간 티승상 용두자 티혹스 겸 구석동서령 성도비 닝국공 동인왕
 의 성은 니요 명은 관성이요 즈는 즈취요 별호는 운계선성이니 티즈디스 동무
 공 니현의 장지라 모 뉴시 꿈의 낭경성을 습키고 성하니라 공이 십스세에 할성
 당원하야...中略...니십이 쏘너으며 승상의 거하니 만시 거울 쏘다가 불령하야
 공의 부친 티즈공 상스물 만나 금췌 고향으로 간 후 다시 의괴를 결발하야 텃하
 를 도라 의병을 이르켜 야선을 좃고 황상을 마즈 도라오다 공의 아우 두 사름
 이 이시니 하나는 문정왕 한성이요 별호는 운학인데 문장이 일세에 득보하야시
 나 흉노물 치다가 낭식이 췌어져 전사하고 다른 하나는 티즈소부 북췌빅 니인
 성이니 즈는 자경이라

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아 이 「雙劍奇逢」은 「李氏世代錄」으로 連結되
 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런데 「李氏世代錄」의 末尾에 또

턴되 늑흐나 엇지 슬피미 쇼쇼처 아니리오 회원 등의 스적이 만흐터 이 던
 이 너모 지리홀 고로 다시 닛지 못하고 쏘로 턴을 무어 너니 명왕 니시후턴
 봉봉계록이라 하니 회라 쏘고로 사름이 자손이 만코 현달하느니 니승상 명국공
 가등가트니 업손지라...中略...회원이 한미 만난 스연과 회원이 뉴홍의 녀 현우
 을 췌하야 목경의 스연이며 그 누의 옥쇼의 스적이 닝봉봉계록의 잇느니라

하는 記錄이 있음을 보아 「李氏世代錄」은 다시 「李氏後代麟鳳雙系錄」
 (麟鳳雙系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雙劍奇逢」은 「玄氏兩熊雙麟記」가 「明珠奇逢」으
 로 連結되고 이것이 다시 「明珠玉緣奇合錄」으로 連結되고 있음과 同一
 한 이른바 三部作의 連作小說임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連作小說은 主人公에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다시 孫子代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한 作品이 끝이 나도 개운치 않은 아쉬
 운 感이 있기 마련인데 이 「雙劍奇逢」도 그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끝 部分에서 이야기를 매듭짓지 못하고 中間에서 그만둔 듯한 印象을 풍기는 作品이다.

筆者는 本稿에서 既往에 紹介된 이 作品의 梗概에 대한 誤謬를 바로 잡고, 作品에 나타나는 作者名과 關聯된 問題, 그리고 作品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男性世界의 念願 다시말하면 그들이 追求하는 理想的인 政治體制, 指導階層의 改編 그리고 바람직한 指導者像 等에 대하여 考察해 보려고 한다.

2. 梗 概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作品에 대해서는 筆者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金起東교수의 紹介가 있기는 하였으나 老大的 作品을 簡略하게 言及한 탓으로 그 梗概마저도 理解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紹介한 것마저도 바로 잡아야 할 點이 있기에 여기 다시 그 梗概를 紹介하려고 한다.

大明 永樂年間이다. 문영각 대학사 태자태부 총문공 이현은 門下侍郎을 歷任한 아버지 이명과⁵⁾ 어머니 진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일찌기 이명이 南京 妓生인 흥낭에게 感한 바 되어 부인 진씨를 내쳤다. 진씨가 친정으로 돌아가던 중 그녀가 탄 배가 漂流하였기 때문에 이현은 四面無頼의 客地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患亂중에서 자라나야만 했던 이현이었지만 그는 熱心히 冊을 읽었다. 史書에 通達한 그를 본 유쳐사가 請婚하매 이현의 母親 진씨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현과 유소저는 成婚하기에 이르렀다.

이현이 科擧를 보려고 京師로 떠나게 되자 유소저는 그녀가 가지고

5) 金起東교수는 「李朝時代 小說의 研究」 p. 170에서 이명을 李昌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있던 한쌍의 팔쇠 가운데 그 하나를 이현에게 나누어 주고 後日의 信標로 했다.⁶⁾ 科擧에서 壯元을 한 이현이 翰林學士가 된 뒤 父親을 피러 故鄕에 갔으나 그의 父親이 이미 五年前에 흉남의 情夫에게 被殺된 뒤였다. 이현이 父親의 遺수를 갖고 母親을 모시러 가다가 賊黨을 만나 危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때 上皇의 第四子인 燕王이 그를 도와 주었다. 그 뒤로 이들은 서로 親知가 되었다.

이현이 母親을 피시고 故鄕에 돌아와 農事를 지으며 지냈으나 그는 늘 유소저를 잊지 못했다. 한편 유소저는 父親과 死別한 뒤로 繼母 손씨가 그녀를 金哥에게 팔려는 禍를 피헤 떠돌아 다니다가 집안 오빠인 유한림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서 男便 이현의 消息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京師로 갔을 때 이현은 이미 故鄕에 내려간 뒤였다. 그녀가 다시 이현의 故鄕을 찾아 가던 中途에서 그녀는 父親과 平生知己였던 소처사를 만나게 되어 그에게 依托하여 지냈다.

물려 지내던 이현이 燕王의 突然한 訪問을 받고 그에게 處身策을 일러준 것이 빌미가 되어 이현은 金州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귀양길에서 소처사 집에 이르게 된 이현은 그곳에서 유소저와 邂逅하여 그들이 지난날 나누어 가졌던 원문시와 金劍으로 서로가 夫婦임을 確認하고 함께 山東에 가서 지냈다.

上皇인 太祖가 世上을 떠나자 燕王은 서리워하면서 그 葬禮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이를 拒絕 當하였다. 이때부터 叛心을 품게 된 燕王은 드디어 起兵하여 南京을 攻陷하고 帝位에 올라 이현을 부르매 이현은 23세의 젊음으로 三公職에 나가게 되었다. 이현夫婦가 京師로 가던 중 소처사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날 밤 유소저는 그가 가지고 있던 팔쇠 한짝을 잃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現夢한 父親에게서 孫子代에 이르러

6) 金起東교수는 前揭書에서 「後日을 爲하여 雙劍을 交換한다」고 하였으나 交換한 것이 아니고 유소저가 가지고 있던 한쌍 가운데 그 하나를 이현에게 준 것이다.

雙劍이 만나는 奇逢이 있을 것이라는 豫言을 듣고 그 마음을 달랬다. 이후 그들은 膝下에 三男一女를 두게 되었다.

長子 이관성은 정연의 딸과 結婚한 뒤 오래지 않아 科擧에서 壯元하였다. 이때 정소저의 美貌에 眩惑된 女侍中의 아들 여환이 計巧로 정소저를 모함하고 李氏家에서 그녀를 내치면 그때 정소저를 자기의 아내로 맞으리라 하였다. 李氏家에서 그녀를 내치자 여환은 정연이 찾아가 정소저의 再嫁를 증용하다가 혼이 나고 돌아왔다. 이무렵 한왕은 禮部尙書인 이지강 및 이지강의 사위인 여환과 結託하고 이현의 父墓를 파헤치고 그 山에다 불을 지르게 했다. 이 事件을 수습하기 위해 이현이 그곳에 내려간 사이에 그들 한왕의 무리들은 東宮으로 하여금 南京을 지키게 한다는 이유로 南行케 하는 한편 정소저의 父親인 정연은 前皇帝인 建門과 通한다고 모함하여 南海로 내치게 했다. 그뒤 한왕은 刺客을 보내어 東宮을 殺害하려 하였으나 失敗하였고 南行하는 정소저를 犯하려던 여환도 亦是 失敗하고 말았다.

이현이 京師에 돌아와서 그간의 事情을 듣고 皇帝에게 直諫하자 皇帝는 그 虛實을 確認하고 이지강을 남주 추관으로 내보내고 한왕을 本國으로 돌려 보내는 한편 南京의 東宮을 불러 들이고 정연을 각노로 다시 불렀다. 이때 東宮을 保護하려고 隨行하였던 이관성은 禮部尙書로 陞擢되었다.⁷⁾ 정연이 京師에 돌아온 뒤에 딸인 정소저가 양양태수에게 依託하고 있음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다.

문황이 在位 20년에 昇遐하니 太子가 即位하여 仁宗이 되고 이관성을 吏部尙書로 任命하였는데 仁宗은 不幸하여 父皇의 三年喪이 지나기도 前에 昇遐하매 어린 宣宗이 即位하고 25세의 젊은 이관성을 左丞相에

7) 金起東교수는 前揭書에서 「鄭樞密을 解配, 上京하게 하고 漢王을 本國으로 돌아가게 하고 朝廷을 바로잡는데, 李寬成은 左丞相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관성은 禮部尙書가 된 것이고 그가 左丞相이 된 것은 어린 宣宗이 即位한 뒤였다.

任命하였다.

한왕이 本國으로 쫓겨간 뒤로 不軌의 뜻을 품고 軍士를 조련하고 軍糧을 모으더니 어린 宣宗이 即位하자 軍士를 일으켜 叛하매 朝廷에서는 海陵王을 陸軍都督으로 하고 이태사(현)의 次子인 이한성을 水軍都督으로 하여 叛軍을 치게 하였다. 亂이 平定되고 한왕이 사로잡혀 왔을 때 皇上은 그가 至親이라 하여 죽이지 않고 別宮에 가두어 두었는데 皇上이 그곳에 갔을 때 한왕은 皇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害하려 하였다. 그래서 皇上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이태사의 三子 이연성이 공부낭중 청길의 딸과 成婚하였으나 청소저는 일찍 죽고 말았다. 아내와 死別한 연성이 吏部尙書 정문한의 딸을 본 뒤로 조카인 몽창을 시켜 그녀에게 戀書를 보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승상 夫婦에게 간청하여 通婚하였으나 鄭氏家에서는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글을 써서 行패를 부리며 李太師가 이 事實을 알고 責杖을 치고 嚴하게 다스리자 鄭氏家에서는 이 請婚을 받아 들여 연성과 청소저를 成婚시켰다.

禮部尙書 장세걸은 부인 오씨를 맞아 膝下에 三男一女를 두었다. 張尙書가 일찍이 李丞相의 長男인 몽현을 보고 請婚하매 李氏家에서는 이를 許諾하였으나 그들의 年齡이 어리매 더 成長하기를 기다려 成婚시키기로 하였다. 이럴 즈음에 仁宗이 李丞相에게 長女인 호성공주의 婚姻을 말한 적이 있었으나 李丞相은 몽현과 장소저가 婚約하였음을 아뢰고 難色을 表明한 바 있었는데 仁宗이 昇遐하자 太后는 또다시 이 問題를 들고 나섰다. 張氏家와 李氏家에서는 그것이 不當함을 力諫하였으나 太后는 이를 容納치 않고 公主와 몽현의 婚事를 強行하고 말았다.

몽현이 駙馬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는 公主를 돌보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그 까닭을 찾던 公主는 駙馬가 장소저와 定婚하였다가 자기때문에 破婚當한 사실을 알고는 太后에게 장소저를 駙馬의 第二夫人으로 맞아

들이게 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때 太后는 駙馬에게는 두 아내 없음을 이르고 이를 許諾치 않았으나 公主가 죽기로써 간청하매 太后도 하는 수 없이 그것을 許諾하였다. 장소저는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여라 하지 않았으나 몇 차례의 간곡한 公主의 정성에 그 뜻을 굽히고 李氏家에 出嫁하였다. 公主와 장소저는 同甲으로 서로 의종게 지냈다. 그런데 일찌기 장소저에게 求婚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선치(宣宗皇帝의 後宮인 竇貴妃의 아우)가 駙馬는 장소저만 驕愛하고 公主를 박대한다고 모함하자 太后는 그것이 事實인 줄 알고 장소저를 李氏家에서 내치게 하였다. 이때 公主는 그것이 헛된 所聞임을 아뢰고 장소저를 다시 데리 오도록 했다. 이후 그들은 情답게 지내다가 장소저가 먼저 말을 낳고 뒤이어 公主가 아들을 낳았다.

李丞相은 次子인 몽창의 性格이 과격하다 하여 그가 15세가 넘도록 婚姻을 시키지 않고 있었다. 이때 禮部侍郎 상공영이 仲媒로 請婚하되 李丞相은 그것을 받아들여 몽창과 장소저를 成婚게 했다.⁸⁾ 이듬해 몽창이 科場에서 壯元하여 翰林學士가 되고 또 장소저가 아름다운 媵다가 得男하는 즐거움까지 있었으나 暮春에 장소저가 得病한 뒤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李翰林이 부인의 葬禮를 끝내고 京師로 돌아오다가 호광당에서 한 閨秀를 만나게 되었다. 李翰林이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어 이내 請婚을 하였으나 거절을 當하고 말았다. 그녀는 말쇠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쇠의 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決코 結親치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후 翰林이 집에 돌아와 지내다가 하루는 할머니의 방에서 말쇠 한개를 發見하고 또 그것에 얽힌 內歷도 듣게 되었다.

8) 金起東교수는 前揭書에서 「이때 李丞相의 次子 夢昌은 呂尙書의 딸과 成婚한 지 三年만에 呂夫人이 病으로 죽자 呂夫人의 侍婢인 玉蘭과 정을 통하고 지내다가…」 하였으나 몽창은 처음에 禮部侍郎 상공영의 딸인 장소저와 結婚하였던 것이다.

이듬해 이몽창은 호광地方의 巡撫使가 되어 내려 갔다. 그곳에서 그는 數三朔 治民을 잘 한 까닭에 官銜가 無事하였다. 이에 몽창은 지난 날 단란 바 있던 그 閨秀를 찾아 노태감 집일 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근본을 알아 보고 가지고 간 팔쇠를 맞추어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과 완전한 한쌍이었다.⁹⁾ 이에 몽창은 서둘러 그곳에서 單身으로 그녀와 成婚하였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몽창은 禮部侍郎으로 陞擢되어 京師로 올라 가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곧 데려 가겠노라는 約束만 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몽창이 집에 돌아와 보니 父母들은 刑部侍郎 순희의 딸과 定婚을 해 놓고 있었다. 이때부터 몽창은 病이 되어 일어나지 못했다. 父母들은 몽창이 病이 난 까닭을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宦家와는 結親할 수 없으면서 그의 結婚을 認定하지 않았다. 그의 病勢가 날로 危重해지매 于先子의 목숨만은 救해 놓고 볼 일이라 해서 그녀를 데려 오도록 하고 순소저와의 婚約은 일단 걸우어 두기로 하였다. 事態가 이렇게 進展이 되자 몽창의 病勢는 곧 回復이 되었다. 그러자 그의 父親은 아들의 輕率한 行動에 責杖을 쳐서 몽창은 十餘日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집안 어른들은 그를 子息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그녀에게 破婚함을 通報하기에 이르렀다.

蘇處士의 아들인 禮部尙書 소문은 李太師의 親知였다. 일찌기 소문이 逆賊을 討伐하러 出征하였다가 失敗한 일이 있어 그는 그 罪過로 流配를 當했다. 그는 謫居 十年만에 그 罪가 풀리면서 戶部尙書에 任命되어 京師로 돌아왔다. 그는 李丞相을 찾아와 自己를 도와준 恩惠에 感謝

9) 金起東교수는 前揭書에서 「李夢昌은 巡撫하다가 蘇尙書의 집에 들러 月惠의 美貌를 보고 父母의 승낙없이 결혼하고 上京하여 집에 있는 팔쇠와 蘇尙書의 집에 있는 팔쇠가 한 쌍이 됨을 알고 雙劍이 奇逢한 天定佳緣이라 좋아하나…」 하였으나 몽창이 卍수를 만난 곳은 노태감의 집이요, 그곳에서 몽창은 그가 가지고 갔던 팔쇠를 맞추어 본 것이다.

했다. 그리고 그는 몽창과 만나기를 願하면서 그를 自己의 사위라 했다. 李丞相은 그 曲折을 몰랐다가 몽창이 지난날 호광에서 結婚한 그 閨秀가 바로 蘇尙書의 딸임을 알게 되고는 前日 몽창을 重賞한 것을 후회하였다.

몇번 몽창의 사랑을 받은 바 있던 侍婢 옥난이가 變함 없는 사랑을 기대하다가 소소저가 들어옴을 보고는 그녀를 죽여 없애라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옥난은 侍婢 난매를 買收하여 몽창의 前妻 所生인 아들을 죽여 소소저의 處地를 어렵게 했다. 그녀는 또 소소저의 筆跡을 흉내내어 菴夫의 이름으로 글을 보내기도 하고 개면단을 먹고는 얼굴 모습을 바꾸어 소소저의 방에 들어가기도 하며 몽창으로 하여금 소소저를 疑心케 했다. 그녀는 또 關中에 誣告狀을 보내어 마침내 소소저를 李氏家에서 쫓겨나게 하였다.

옥난은 소소저가 남창으로 가는 길목에 刺客을 보내어 그녀를 해치려 하였으나 소소저는 요행이 그 禍를 피하여 떠돌아 다녔다. 이무렵 侍婢인 운애가 소소저가 낳은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 어머니의 이야기와 소소저가 떠날 때 남기고 간 글 그리고 아버지인 몽창과 옥난의 關係를 이야기 함을 들은 御史 몽창이 父前에 그것을 아뢰니 다음 太師의 命에 따라 옥난을 다스리고 모든 사실을 自白받아 소소저에 대한 疑心을 풀고¹⁰⁾ 그녀를 찾았으나 그녀가 나타나지 않으며 蘇氏家와 李氏家에서는 그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宣宗皇帝가 在位 十年에 昇遐하고 正統皇帝가 即位한 뒤 이몽창을 兵部尙書로 任命하였다. 이때 國舅 조겸이 그의 次女로 李尙書에게 通婚하였다. 그러나 李尙書는 그것을 拒絕하였다. 그랬더니 조겸은 그의 長

10) 金起東교수는 前揭書에서 「李丞相이 侍婢들의 음모를 엿듣고 玉蘭을 죽쳐 자백을 얻으니…」하였으나 御史인 몽창이 그의 아들을 돌보는 侍婢가 그의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 事實을 父親(이관성)에게 報하니 父親은 다시 몽창의 祖父인 李太師에게 아뢰고 그의 命을 받아 옥난을 다스린 것이다.

女인 皇后를 움직여 꾀박하매 李尙書家에서는 하는 수 없이 擇日하여 조씨를 맞았다. 그러나 李尙書는 도시 그녀가 뜻에 맞지 않아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내던 正統三年 五月에 邊方이 시끄러워졌다. 장청이 三十萬 大軍으로 叛하매 朝廷에서는 이연성을 水軍都督에 그리고 이몽창을 陸軍都督에 任命하여 出征케 했다.

한편 南方에서 流浪하던 소소저는 남창에서 生男한 뒤로 轉轉하다가 前職 給事인 은환의 好意로 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은給事の 三 娶요 妓生出身인 태진이 男裝公子인 소소저에게 秋波를 던지는 바람에 견딜 수 없어 그곳을 빠져 나오고 말았다. 한 女僧寮에 이르렀을 때 그곳 으뜸 女僧이 하루밤 恩惠를 간청해 왔으나 소소저가 이를 拒絕하자 그 女僧은 無賴漢을 부러서 소소저에게 報復하려 하였다. 이 禍를 避하여 달아나던 소소저는 江으로 길이 막히게 되자 그만 江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마침 그때 軍山 옥룡관의 운수道士가 洞庭湖 구경을 나왔다가 이 光景을 보고 急히 救하여¹¹⁾ 옥룡관으로 데리고 갔다. 운수道士는 그녀가 貴人임을 알고 도타운 禮로 소소저를 대우하였다.

장청의 亂을 平定하고 水路로 京師에 돌아가던 李尙書가 中途에서 風雨를 만나 그가 탄 배가 뒤집어졌다. 그의 部下들이 끝내 그를 찾지 못하게 되자 京師에 돌아간 副元帥는 그가 죽었다고 報告하였다. 이에 李尙書의 家에서는 그의 招魂祭를 지내고 또 은 집안이 눈물로 歲月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옥룡관에서는 운수道士가 그의 스승의 夢事를 받아 소소저를 帶同하고 洞庭湖에 가서 물에 빠진 李尙書를 救出하여¹²⁾ 그를

11) 金起東교수는 前摺書에서 「洞庭湖에 이르러 무신자살한 것을 한 女道士가 나타나 구출해 준다」고 하였으나 그녀를 救出한 사람은 軍山 옥룡관에 있는 운수 道士로 이 사람은 男子인 것이다.

12) 金起東교수는 前摺書에서 「蘇夫人이 前妻인 呂氏의 夢中敎示를 받고 남편을 구출한다」하였으나 李尙書의 前妻는 呂氏가 아니고 삼공연의 딸인 상씨이며 또 그의 前妻에게서 夢中敎示를 받은 게 아니라 소소저가 依托하고 있던 옥룡관의 운수道士가 그의 스승에게서 夢事를 받고 소소저와 함께 洞庭湖에서 그녀의 男便인 李尙書를 救出한 것이다.

옥룡관으로 데리고 갔다. 이들은 얼마동안 그곳에서 지내다가 소소저가 먼저 그곳을 떠나고 뒤이어 李尙書가 떠난 뒤 20日만에 京師에서 서로 만났다.

조씨는 소소저가 살아 돌아왔음을 자못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틈만 있으면 그녀를 쫓아러 하며 李尙書는 婢子로 하여금 소소저의 廢所를 얻히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조씨는 婢子 이항을 부려 그녀가 當하고 있는 곤욕을 宮中の 皇后에게 通하게 했다. 皇后는 이를 움직여 李尙書를 下獄케 하고 소소저를 南京으로 移居토록 했다. 이때 李丞相은 소소저를 南京으로 보내는 척하고는 그녀를 張尙書 집에 숨어 있도록 했다. 이때 진태후가 이 事實을 알고 公主로 하여금 그 真相을 調査케 한 結果 조씨의 말이 誣告임이 드러나 尙書와 소소저는 풀려나게 되었으나 소소저만은 繼續 숨어 지냈다.

최尙書의 生日날 몹시 醉한 李尙書가 임소저(소소저가 流浪하던 때 이몽장이란 이름으로 佳約을 맺었던 女人, 李尙書의 側室이 됨) 處所에 들어감을 본 조씨는 임소저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房에 들어가 하루밤을 李尙書와 지내고 새벽 일찍 그곳을 빠져 나왔다. 그후 조씨는 잉태하게 되었는데 아들만 낳으면 그로 代를 잇게 하리라 생각하고 李尙書의 아들 영문을 毒殺케 했다. 이에 李尙書가 表를 올려 조씨의 罪를 물었으나 皇后는 刑部尙書인 설연을 움직여 그 表가 虛妄함을 참소케 했다. 이에 李尙書는 誣告罪로 몰리어 절강으로 定配를 當하고 소소저는 南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皇后의 꿈에서 生産이 없다가 後宮인 양씨에게서 아들을 얻은 皇帝는 양씨에게 기슬어지게 되었다. 이무렵 前日 억울하게 죽음을 當한 바 있던 소소저의 婢子 성교가 皇帝의 꿈에 나타나 그 억울함을 말하고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하소연을 하였다.¹³⁾ 皇帝가 이 夢事를 양씨에게 말하자

13) 金起東교수는 前揭書에서 「皇帝가 억울하게 죽은 蘇夫人의 侍婢 素蕪가 나타

그녀 또한 그 獄事가 그릇되었음을 아뢰매 皇帝는 前日의 獄事를 다시 다스려 李尙書와 소소저의 無罪함을 밝혀내고 그들을 救하는 한편 이것이 國弱과 皇后가 걸들인 조씨의 計略임을 깨달아 조씨를 山東으로 流配시키고 말았다.

진태부인이 老患으로 他界하매 李氏家에서는 丞相을 비롯하여 모든 後孫들이 벼슬을 사직하고 금궐에 가서 三年喪을 보내게 되었다. 母夫人의 喪事에 너무 애통해 했던 太師가 또 그곳에서 病을 얻어 62세를 一期로 世上을 떠나고 말았다.¹⁴⁾

李氏家에서 모두 사직한 뒤로 朝廷이 그릇되어 皇上이 北伐을 하다가 皇帝가 오랑캐에게 사로잡히게 되니 皇弟인 景泰가 即位하여 皇帝의 太子와 皇后를 別宮에 내치고 달았다. 이 事實을 알게 된 李丞相은 百方으로 뜻있는 人材들을 모아 正統皇帝의 復位를 계획하였다. 한편 李尙書는 北으로 正統皇帝를 찾아가 李丞相의 뜻을 傳하고 들어왔다. 이듬해 봄 李丞相은 그가 모은 兵士들을 거느리고 北으로 가서 正統皇帝를 救出하고 京師에 돌아와 北門에 陣을 치고 景泰에게 글을 보내니 景泰가 부끄러워 自刎하매 正統皇帝가 다시 大統을 이었다.¹⁵⁾

이때 也先이 丞相에게 敗하고 快快하던 中 오왕과 結托하여 起兵하매

나 원수를 갚아 달라는 꿈을 꾸고...」하였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소소저의 侍婢 성교가 영문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여측하러 간 사이에 조씨가 영문의 입에 독을 넣다가 들키자 형부상서 설연을 움직여 성교를 誣告하게 하고 그녀에게 罪를 뒤집어 씌워 그녀를 죽이게 하였던 것이다.

- 14) 金起東교수는 前揭書에서 「李太師는 故鄉에서 政事의 문란을 개탄하다가 喪中에 病을 얻어 62세로 卒한다」하였으나 그는 政事의 그릇됨을 걱정한 탓으로 病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그 母夫人의 喪事에 지나치게 傷心한 탓으로 得病하게 된 것이다.
- 15) 金起東교수는 前揭書에서 「武寧伯이 처음에는 이기다가 나중에 大敗하여 戰死하니 때에 45세였다. 副元師 李燕成이 胡軍을 격퇴하고, 李丞相은 胡地로 들어가 皇帝를 救出, 皇城으로 모시고 와서 復位시켰다」하였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뒤에 이어지는 줄거리를 읽어보면 說明치 않아도 알게 되겠기에 그곳으로 미룬다.

丞相이 大元帥, 몽헌이 副元帥가 되고 몽장이 水軍都督이 되어 出征하였다. 이들은 곳곳에서 勝捷을 건우었으나 이 亂이 채 平定되기도 前에 北의奴가 또 叛旗를 들고 일어섰다. 이에 이한성이 征元大元帥가 되어 出征하였으나 그는 敵의 絶糧策에 말려 食糧을 얻지 못하다가 敵의 奇襲을 받아 戰死하고 말았다. 얼마후 이한성은 兄인 丞相의 꿈에 나타나 書室의 주홍케 속에 책이 있음을 말하매 丞相이 그것을 찾아 보았다. 그 冊에는 이관성이 제갈공명, 정부인은 천상금모낭낭, 이등현은 강유, 그리고 이몽장은 위인 등의 後身이라는 前生 輪廻 報應한 說話가 있음을 發見하였으나 그는 이것을 口밖에 내지 않고 지냈다. 丞相 兄弟가 그들의 子女들을 다 養育하여 立身케 하고 尤夫人을 되시고 無窮한 福緣을 누리나 太師의 中年 棄世와 무녕백의 戰死를 생각하며 切切히 지내게 되었다.

3. 作者와 關聯된 問題

우리 나라의 古代小說(한글小說)을 말할 때 特記할 만한 것으로 그 作品들의 創作年代가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點과 作者가 未詳이라는 點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李朝後期에 이르러서는 作品의 末尾에 그 作品의 作者와 關聯지워질 듯한 記錄들이 있어서 或是 作者 准定이 可能하지 않을까 하는 期待를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이 「雙劍奇逢」의 다음과 같은 경우다.

이제 승상 막하리실 뉴문한이 니부인괴를 닷타 하니 외스물 도를 일이 업고 니당괴실 옥한은 뉴문한의 열리라 냥인이 니부 너외 일을 심심세세히 아는 고로 가만이 괴이호 스겨울 벗겨 다른 곳의 감초와 후인이 알게 하고즈 하디 승상등과 문경공등이 이런 일을 도히 아니 녀이는 고로 그 심시의는 괴록지 듯하고 뉴문한이 인호야 죽은 후 니부 일괴 벗긴 거시 뉴문한의 조손의게 전호야 내려가더니 능경황에 겨 설최의 칠티손 설문이 급메호야 한님 호시 되어 스괴를 닷글시 승상과 문경공의 전후 대공과 통성이 고금에 업스니 설문이 스스로 셴

조의 형원을 생각하여 붓을 가지고 소리를 쓰며 만일 호 말이나 니공 간섭호 뜻이 이시면 다 쟁려 바리니 뉴문한의 늑덕손 뉴형이 쓰호 한님슈찬으로 호가지로 잇더니 설문의 거동을 고이히 녀여 글오티 공이 국가 소리를 지으며 니공又튼 현상을 쟁려나다 설문 왈 니공의 전후 처시 너모 고급에 드름므로 도리혀 허탄 키 쟁가오니 후인이 밋지 아니면 녀티 경매 위덕이 쓰 러시 될 거신 고로 쟁려 노라 뉴형이 설문의 용심을 무상이 녀여 힘베 현우리니 설문이 노하야 진괴정 등을 축하야 뉴형을 양취 원찬하니 뉴한님이 분을 먹음어 양취 니르러 모욕을 짓고 일월을 보으며 심하의 니승상 명당이 후세에 쟁디를 호하야 그 선조 뉴문한의 끼친 니부 일괴를 녀여 그 가운데 괴이호 말만 쟁려 전을 지으니 문정공 공창이 소시로 더브러 방천의 괴특히 합호들 인호야 슈계 방천괴봉이라 호고 노시랑 부인 병성을 호 면에 너히 날오려 하더니 본토인 위한은 노시랑 문괴 위봉의 조손이라 위봉이 일죽 노시랑 은혜물 넘어 그집 일괴를 닷타 물을 일이 업고 쓰 북쥬빅 장조 문씨의 돌지 부인 노시랑 태상의 아오로 허다 사연이 잇는 고로 드디어 전을 지어 계명호티 동서화라 호야 여러권 책을 날워 두엇더니 위한이 뉴한님과 소괴여 단니더니 방천괴 날오물 보고 글오티 범물이 여러 사람의 말을 드르미 번잡하니 너게 선괴 끼치신 이리이러호 취이 이시니 노시랑 부인 말을 쟁려미 가타하고 문서화물 가져와 보니 뉴한님이 그 책을 탄복호고 글오티 문정공 계조와 하람공 계조의 스덕이 더 괴특호티 이 전이 너무 지리하니 별전을 날워 후세에 전하리라 호고 니시새티록을 지어 흥문동 형제와 성문의 스형제의 수연과 경문의 본부모 좃던 일이며 허다 괴괴호 스적이 세티록의 다 조시 잇느니라 뉴 위 이인이 세가지 책을 모든 티 전하니 보느니 비록 니승상 위덕을 드더시나 이티도록 호물 모르더니 바야흐로 괴특이 녀여 닷도와 벗겨 집안 보비로 습으니라 지외외국의가지 홀너가니라 이 전이 곳쳐져 무미호미 세티록에 잇는 연고니 후인이 세티록가지 누리 보와 괴괴호 사연을 조시 알나.

이 記錄을 通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추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한림은 그 祖上이 남긴 李氏家의 日記를 바탕으로 하여 「雙劍奇逢」이라는 作品과 이 作品의 續篇에 該當이 되는 「李氏世代錄」을 지었다는 것. 둘째, 유한림과 위한이 이 作品들을 널리 世上에 傳播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 傳寫하였고 마침내는 外國에까지 이러한 作品이 傳播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事實을 額面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筆者는 매우 懷疑의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理由에서이다. 첫째, 이 「雙劍奇逢」의 記錄이 이 作品을 쓴 作者의 만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즉 〈丞相 兄弟가 그들의 子女를 다 成婚하고 尤夫人을 의지고 無窮한 福緣을 누리나 太師의 中年 棄世함과 무념백을 생각하고 憾憾히 지내더라〉 하도서는 뒤이어 〈이때 丞相 幕下記室 유문한이 李府의 日記를 말아〉로 連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作品의 한 部分은 필지언정 다른 사람의 손에 依해 씌어지는 序文이나 跋文 따위로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萬一 이 記錄이 跋文이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依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이 記錄은 作者와 關聯시켜 再考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치더라도 이 作品만은 앞으로 分析할 것들과를 關聯시킨다면 그러한 可能性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 유한림이 「雙劍奇逢」의 續篇에 該當하는 「李氏世代錄」을 지었다 하였는데 우리는 「李氏世代錄」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출프다 줄원 사람이 본디 감 붓기를 위하야 아조 근본 업손 말노 죄을 무어 후러 무식너류의 눈을 밝히니 니시 계인의 힘겨 소신의 오물진디 튼류의 아롬 당져 아니리오모는 간신이 스혐으로 인하야 농술하디 방계곡경을 이럿듯 괴록 호 스연이 민만하문 안겨 모년모일의 나 뉴문당은 글시호노라.

「雙劍奇逢」에서는 分明히 유형이 양주방에서 「李氏世代錄」을 지었다 하였는데 「李氏世代錄」에서는 유문장이 지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셋째, 유형과 위한이 이 作品을 널리 世上에 傳播한 것까지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나 上記한 記錄은 이 作品이 世上 그리고 外國에까지 傳播된 먼 훗날의 結果까지 普及하고 있는 데에는 首肯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는 時間的으로 보아 훨씬 앞지른 未來의 結果까지를 말하고 있는 矛盾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事實은 우리로 하여금 作品에 露出되는 作者를 查明

그 作品의 作者로 믿게 하기에는 너무나 虛點을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하노공의 벽세 鍾景福과 오왕 팔농의 슈다 주니중 생려는 스겨이 괴괴모모훈
 덕 이 전은 하사 팔농의 설화를 기록하미 지리함을 쟈려 그 덕강만 하고 다시
 팔농의 주니별전을 두어 떠다 주너의 초출함과 효조의 아톰다운 설화는 별전의
 잇논지라 이적의 쇼홍부 뉴빅공은 뉴은춘의 오자라 은춘이 대부정충으로 지어
 세의 던홀시 빅공드려 알 너 하오왕의 지세훈 설화는 히비히 알므로써 그 덕강
 을 기록하야 세인이 알게 하미니 네 모로미 하사의 일괴를 보아 그 주손의 아
 톰다운 스겨을 민멀케 말나 뉴빅공이 지비슈명하고 이의 그 일괴를 구하야 한
 단훈 설화를 너치 아니코 간략이 작권하야 세의 던홀나 보는 재 흥선치 아니리
 업더라 슈계 벽허담관제언능이라 흥문 요란훈 설화와 허망훈 스의 세간의 편
 령하야 고인을 의방빙거하야 잡되고 어즈러오미 만홀시 허언을 물너치고 모든
 언서중 부잡하미 업고 명정언순하미 갖가와 하사 스겨이 웃듬인 그로 관제언능
 이라 하야 후세의 던홀야 권선징악고져 하니 경이히 너이지 말지어다.

라는 「碧虛談關帝言錄」의 後尾 記錄과 同一한 性格의 것으로 李朝後期
 의 長篇小說에 붙어 다니는 常套의인 手法으로 看做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例는 또 우리 나라의 漢文小說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權輿의 「周生傳」에서 ‘내’가 松京에 갔다가 周生을 만나게 되
 었고 그에게서 들은 바 그의 告白의인 體驗談을 記錄하노라 한 것이라
 든지¹⁶⁾ 趙緯韓이 「崔陟傳」에서 主人公인 崔陟이 作者를 찾아와서 그의
 崎嶇하였던 그 顛末을 記錄해 달라는 請托을 하기에 이것을 記錄하노라
 한 것이라든지¹⁷⁾ 「沈生傳」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 16) 明年癸巳春 天兵大破倭敵 追至慶尙道 生念仙花不置 遂成沈痛 不能從軍南下
 留在松京 余適以事 往于松京 遇生於館驛之中 語言不同 以書通情 生以余解文
 待之甚厚 余詢其致病之由 愀然不答 是日有雨 仍與生張燈夜話 生以踏沙行一闕
 示余…中略…余再三飄詠其詞不置 因探詞中情事 生於是不能諱 從頭之尾 細說
 如右 因曰幸勿爲外人道也 余已覽其詩詞 歎奇遇而愴佳期 退而援筆述之云爾
- 17) 余流寓南原之周浦 陟時來訪余 道其事如此 請記其顛末 無使湮沒 不獲已略舉其
 概

여기 다시 윤기노라 한 것¹⁸⁾, 또는 燕巖이 「許生傳」을 尹映이란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여 假托의 成文法을 쓰고 있음과 같은 것은 모두 同一한 手法이라 하겠다.

이처럼 假托의 方法을 驅使하게 된 것은 첫째, 當時 社會에서 小說을 <作奸誨淫하니 不可接目이라 切禁子弟하여 勿使看之하라 或有對人 媿媿誦說하여 勸人讀之하니 惜乎라 人之無識이 胡至於此乎아>¹⁹⁾ 한다든지 <明末小說의 盛行은 또한 한 國變이니…中略…足히 써 天下의 風俗을 어지럽게 할지라>²⁰⁾ 함과 같이 忌避 乃至는 警戒하던 때문에, 둘째, 宮中의 生活相이나 貴族 乃至는 大官들의 橫暴를 社會에 告發하려 할 때 그것을 正面에서 맞설 수가 없어 假托의 手法을 仍用하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虛構의 이야기를 事實談인 것처럼 돌리어 讀者로 하여금 強한 興味를 誘發케 하려는 作家의인 意圖 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額字의」인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라 봄이 좋을 것이다.²¹⁾

따라서 李朝後期의 作品에서 作者와 關聯지워질 듯한 그 記錄들은 上記한 몇 가지 效果를 노리고 驅使된 作者의 한 手法인 것이지 作者를 밝히는 問題와는 전혀 無關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體制의 模索

우리 나라 古代小說史上 特記할만한 것 중 하나는 李朝後期에 이르러 作品이 大形化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것은 從來의 比較的 짧은 分量의 作品에서 차차 長篇 乃至는 大河의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18) 梅花外史曰 余十二歲 游於村塾 日與同學兒 喜聽談故 一日先生語沈生事甚詳 曰此吾少年時窓伴也 其山寺哭靈時 吾友見之 故聞其事 至今不忘也 又曰吾非汝曹 欲効此風流浪子耳 人之於事 苟以必得爲志 則閨中之女 尙可以致況文章乎 況科目乎 余輩其時聽之 爲新說也 後讀情史 多如此數 於是追記爲情史補遺

19) 李德懋：士小節

20) 洪鳳漢：疎齋集

21) 李在鎭：韓國短篇小說研究，一潮閣 1975. p. 104.

것이다. 이러한 趨勢는 또 그 作品에 登場하는 主人公들의 數々를 한결 넓히고 있다. 「洪吉童傳」이나 「九雲夢」과 같은 比較的 이른 時期의 作品에 있어서는 그 主人公이 비록 英雄的인 存在라 하더라도 그들의 周邊에는 그 家系나 榜系의 다른 人物들이 別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後期의 作品에서는 그 家系나 榜系 또는 그 姻戚間에서 뛰어난 存在들이 一時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 血緣關係에서 大學 官界에 進出하여 그 要職을 獨占하고 보니 한 나라의 行政府가 마치 한 門閥에 依해 조종되는 듯한 印象을 질게 풍기게 된다.

「玄氏兩熊雙麟記」의 경우, 丞相인 현택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長子인 수문은 秘書閣 太學士 右部都御使 兵部尙書 兼備將軍 평재후 오국공이 되었고, 次子인 경문은 春坊翰林 금문직사 吏部尙書 弘文館 太學士 총재 평남후 右丞相 진국공이 되었으며 이들에게서 태어난 子孫이 모두 十四子 五女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男子의 경우는 모두 壯元 아니던 榜眼 등 優秀한 成績으로 科擧를 하여 바람직한 要職에 任用되기도 하고 그중에는 駙馬로 揀擇이 되어 皇室과의 紐帶도 強化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女子들은 皇室과 結緣을 하거나 아니면 能力있는 名門으로 出嫁하였고 또 이 姻戚들은 玄氏家와 協調하여 國事를 運營하고 있는 것이다.

「碧虛談關帝言錄」의 경우 河丞相의 아들인 하유는 膝下에 八子 三女를 두고 있었다. 長子인 경님은 壯元後 여러 官職을 歷任하고 용두간 太學士 左丞相이 되었고, 次子인 경화는 榜眼으로 뽑혀서 太傅 同平章事가 되었다. 그 아래 兄弟들도 兵部尙書나 右丞相 등 要職에 任用되는가 하면 駙馬로 揀擇된 사람도 있었고, 三女들은 世子嬪을 거쳐 王后가 된 사람, 尙書의 아내 또는 太子妃가 되는 등 皇室을 버릇한 名門巨族에 出嫁하였기 때문에 河氏家에서는 그들의 門中의 힘과 姻戚의 힘을 빌어 國家 大事들을 無難히 處理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雙劍奇逢」에서도 그런 面이 보이고 있다. 이룰때면 也先이가 丞相에게 敗하고 怏怏하던 차에 吳王과 結托하여 起兵하였을 때 皇帝는 丞相으로 大元帥를 삼고 몽현으로는 副元帥, 그 동생인 몽창은 水軍都督으로 任命하여 出征 平定케 하였고, 진덕부인이 老患으로 別世한 뒤를 이어 李太師가 죽었을 때 李氏家의 모든 子弟들이 辭職을 하게 되자 곧 朝政은 昏迷해짐을 免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皇帝가 北伐을 의하다가 오랑캐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景泰의 即位를 自招하게 되었고, 景泰가 即位하고서는 皇帝의 太子와 皇后를 내치고 嬖았을 때 李丞相은 野人으로 人材를 모아 皇帝를 北方에서 救出하는 한편 景泰를 몰아내고 正統皇帝를 다시 寶位에 오르게 하는 大課業을 成就하는 경우 또 장청이 三十萬 大軍을 들고 왔을 때 이연성을 水軍都督으로 하고 이몽창을 陸軍都督으로 하여 그 亂을 平定하는 경우 등은 모두 李氏家의 門閥을 主軸으로 하여 여러 姻戚들이 衷心하여 善政을 爲한 公正을 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李朝後期 社會에서 비롯어지고 있던 體制에 어떤 改革이 있기를 바라는 한 모습이 아닐까?

世道란 制度上的의 最高官職者가 아니라 國王의 信任을 얻은 다른 實力者를 두어 百官의 上奏와 國王의 決定이 모두 여기를 循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軍國의 機務를 여기에서 總覽하게 하는 變則을 말하는 것인데²²⁾ 이 世道에는 두 가지 面이 있다 하겠다. 그 하나는 趙光祖 宋時烈로 連結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洪國榮 그리고 安東金氏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前者의 경우 中宗의 信任을 얻은 趙光祖가 儒敎로서 政治와 敎化의 根本을 삼아 三代의 王道政治를 實現하려고 入侍할 때마다 「崇道義 正人心 法聖賢 興至治」를 反覆 啓達하였다는 것이 라든지²³⁾ 光海君이 即位한 뒤 世子時節부터 自己를 擁護해 주던 鄭仁弘

22) 震檀學會編：韓國史 近代後期篇 乙酉文化社 1965. 9. p. 304.

23) 震檀學會編：韓國史 近世前期篇 乙酉文化社 1962. 3. p. 546.

에게

用卿爲司憲府大司憲 知卿有壁立千仞之節耳 激揚頰波 挽回世道 當今之世 舍卿伊誰 至於左右寡躬 調護世子 予不得不期于卿 而卿不得不自任也²⁴⁾

라고 한 것이나, 또는「孝宗」宋時烈에게 「管教曰 明天理 正人心 是予責也 與予共此者 舍卿其誰 卿其以世道 自任焉」²⁵⁾이라던 것과 같은 것이라 한다면 後者에서 洪國榮의 경우는 人格이나 學識 德望도 남다른 바가 없으며 오로지 國王 正祖의 世孫 때부터 身邊護衛를 擔當하였다는 情實 關係 以上은 아무것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國王이 그를 寵信하고 舉國의 政事를 委任하기는 하였으나 公式的인 職位로서는 都承旨 혹은 禁衛 大將이니 하는 程度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趙光祖나 宋時烈처럼 士林의 支持를 받아가며 國王에게 治世의 正道와 教學의 大本을 講論 建議한다든가 危險에 處한 時局과 人心을 匡正 收拾하기 爲하여 어떠한 代案을 獻策하는 것도 아니요, 秘書나 警護 程度의 責任에서 挾天子以 令諸侯 式으로 國王의 寵信을 憑藉하여 政權을 壟斷하며 威福을 貪내는 데 不遇하였다²⁶⁾ 할 것이다. 한편 外戚인 金氏의 世道는 하나의 代表 人物을 내세우고 그들의 大族屬이 行列 寸數의 遠近과 그 才能 如何에 따라 政權과 利權을 相互 適當하게 分配하면서 俗稱 사돈의 八寸까지도 그 權勢와 影響 아래 온갖 惠澤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洪國榮 따위는 問題도 아니요, 戚族의 世道는 진실로 이에 이르러 成熟을 본 것임에 틀림없다고²⁷⁾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雙劍奇逢」은 그 主人公들이 모두 한결같이 道義를 崇尚하고 人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點, 그리고 教學의 大本과 治世의 正道를 알세우며 百姓들을 爲하는 것으로 根本을 삼으려 하고

24) 朝鮮王朝實錄 光海君日記 卷五一 戊申 五月二十八日條

25) 宋子大全 己亥年條

26) 震禮學會編：韓國史 最近世編 乙酉文化社 1961. 6. p. 26.

27) Ibid. p. 30.

있다는 點 等을 미루어 前者인 王道政治 具現의 경우와 가깝다 할 수 있겠다. 過去의 政治體制가 恒常 百姓을 앞에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其實은 언제나 王室이나 一部 特權層을 爲한 政治로 墮落했었으며 심지어는 몇몇 門閥을 위한 勢道로 탈바꿈하고 말았다는 點을 생각할 때 이 作品은 그러한 世襲的 執權階層에 대한 反省的 促進劑로서의 消極性和 當時 社會人들의 一角에서 構築하려던 그들의 理想鄉의 構圖의 一環이라는 積極性이 곁들여져 있다는 한 示唆가 아닌가 생각한다.

5. 指導階層의 少壯化

有能한 人材 拔擢의 手段으로 採擇되었던 科擧制度가 李朝後期에 이르러 亂脈相을 보인 까닭인지 參榜者의 最低年齡 乃至는 그 平均 年齡이 두드러지게 下降勢를 보이고 있다. 正祖 때까지만 하더라도 20세 以下의 參榜者라고는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末期에 와서는 15세라는 어린 나이의 主人公들이 무려 13명이나 榜目에 오르고 있다.²⁸⁾ 이러한 實情의 影響인지는 몰라도 李朝後期 小說 特히 家系를 다루는 長篇小說에서도 主人公들의 參榜年齡 또한 十餘歲 冲年에까지 내려오고 있고, 그들의 立身出世에 대한 敘述도 그 樣相을 달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比較的인 이른 時期의 作品에서는 그 主人公의 資質과 그가 實踐한 結果의 業績에 대한 關心度가 높았지 그러한 것들이 그의 어떤 時期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別다른 關心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상이 그 상소의 뜻을 잔히 더기사 벼살을 도도와 어사대부 겸 병부상서 정서 대원수를 삼으시고…中略…원수 맡게 나려 머리를 조아 뵙은대 상이 친히 부들 어 일으키시고 그 군용 이룸을 권장하시고 곧 조정에 조서를 내리사 껍분양의 옛일을 의방하여 따를 배어주고 왕을 봉하여 상전을 후히 하시거늘 원수 정성

28) 拙稿: 玄氏兩熊雙麟記研究. 서울大學校 敎養課程部 論文集 第四輯pp. 18—19

을 들어내어 힘써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니 상이 그 충의를 좃으사 칙지를 내려 양소유로 대승상을 삼고 위극공을 봉하고 식읍 삼만호로 주시고 기여 상급은 이기어 기록하지 못할라.

이것은 九雲夢에서 楊少游가 六卿을 거쳐三公의 벼슬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의 사정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楊少游가 兵部尙書가 되고 大元帥가 되었다가 大丞相의 職位에 오르게 됨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가 언제 (몇살 때) 그렇게 榮達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이 없다.

여러돌만의 황성의 이르니 텃지 문두 비관을 거나리고 성의의 동가하사 원수를 마자 갈아샤터 경을 만나 전장의 보너고 침식이 불평하더니 이제 덕공을 일우고 무스허 도라오니 엇지 질겁지 아니하리오 하시며 쓰훈 부모와 실너를 만나 도라오니 아롬다음을 치하하노라 하시고 일변 벼살을 도도시며 환궁하시니라 승상이 본덕의 도라오니 원철과 황희 반거홈이 창기 어렵더라 이리구러 세월이 여류하야 원철이 기세하니 승상이 래를 갖초와 선산의 안장하고 이후로 리부인 왕부인과 황희 모다 부모 슬하의 귀홈을 맞쳐 유자성너하고 부귀영화가 세상에 강승상 비호 사툼이 업더라.

이것은 張豐雲이 大元帥로 出征을 나갔다가 勝戰鼓를 울리며 돌아오매 天子가 그를 맞아 그의 功을 치하하고 벼슬을 들우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天子가 벼슬을 들우었다고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벼슬은 丞相이 되고 있다. 萬人之上이요 一人之下인 最高職인 丞相이란 벼슬이 바람에 휘날리는 落葉처럼 아무런 무게없이 불쑥 나타나고 있다

잇쳐 왕상계옵서 공경하고 경림훈 사뵈를 락하사 팔력민정을 살피실서 마침수원 치적이 제일이라 왕상계옵서 더욱 만심환회하사 신류복으로 전라감사를 계수하시더니 반년이 못되야 다시 경상감사로 리직하고 가라샤터 경의 마암과 지조를 무년 시험하야 보리 도쳐 치적이 석일 공수황폐의게 지너도다 이번 경상도에 도입하거던 칠십이쥬 수령을 임의로 출척하라 하시더라 신감사는 본덕 총명하고 명리하야 리사를 이문목도호 것갓치 공결하리 왕상계옵서 엇지 범인으로 아르시리오 신감사 편은을 축사하야 경상도에 도입하야 치적이 역연하리 다시 병조판서로 부르시와 겸위장울 겸하게 하시고 그 부인의 가자를 도도

시와 정렬부인을 봉환시키라

이것은 申遺腹이 水原府使에서 全羅監司, 慶尙監司를 거쳐 兵曹判書에 除授되기까지를 한 묶음으로 處理하고 있는 것이다.

上記한 몇몇 경우처럼 比較的 이른 時期의 小說들은²⁹⁾ 그 主人公이 榮達되는 그 과정만을 問題로 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榮達할 때의 年齡은 전혀 無視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高官에의 顯達이란 예 相當한 年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可能하다는 從來의 思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後期の 長篇小說에 와서는 달리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三公六卿과 같은 高官에 任命되는 때의 그 主人公의 年齡이 밝혀지고 있고 또 그 年齡이 初期 作品에 比하여 훨씬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明珠奇逢」의 경우 오극공의 長子 웅린과 次子 성린은 20대에 벌써 尙書級 以上の 顯官을 歷任하였고 진국공의 長子와 三子도 그만큼 젊은 나이에 벌써 六卿職에 이르고 있다. 이 「雙劍奇逢」에서도

드디어 도복을 조조와 묘당의 나이가 삼공직의 거하니 시년이 이십삼세라... 中略... 초시 임흥은 태소로 년기 갖고 명형 영연 등은 삼십이 지니며는더라 상이 크게 우려하사 죽시 니관성으로 좌승상을 비하하니 상서 년소 외람하물 이기지 못하나 헤아리건디 국스물 다스릴 사물이 업스니 소소호의를 설치고 묘당의 나이가 삼공직의 거하니 시년이 이십오세라.

라고 함과 같이 李太師가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三公職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면 이관성은 25세에 左丞相에 任命되었고 李丞相의 次子 몽창은 21세에 兵部尙書에 오르고 있다. 정형이나 정연 등도 30세를 갓넘은 나이로 三公과 六卿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事實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두가지 面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

29) 張豐靈傳은 木板本으로 出版되었고 또 京板本과 完板本이 있을 뿐 아니라 活字本도 1916년이란 이른 時期에 發行되고 있기에, 또 申遺腹傳은 〈作風으로 보나 表現文章으로 보나 英正時代 以前〉에 되었으리라는 金起東교수의 見解를 따른 것이다.

가 한다. 그 하나는 李朝末期에 擡頭하게 된 戚臣들에 依해 恣行되었던 勢道の 任用的 경우요, 다른 하나는 李朝 後期社會人들의 一角에서 構築 하려던 理想郷의 構圖의 경우다. 前者의 경우 執權 勢道家에서는 利權을 둘러싸고 要職을 分配하였으므로 그 閥閥의 行例이나 年齡에 따라 그 職責을 按配하는 것이 常例였다. 따라서 이러한 一群의 作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젊은 階層의 人物들을 大官에 登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이 問題는 自然 後者인 경우로 돌릴 수밖에 없다 하겠다.

李朝後期에 이르러 이땅에서는 「土」의 概念에 變化가 생기게 되었다. 士란 上友王公이요 下列農工(燕岩原士의 一節)이라던 말은 執權圈에서 脫落된 一部 士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날의 한낱 追憶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 士들은 實際로 被支配 大衆인 農·工·商에 가까와져 있었고 또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世界의 構築이라는 꿈, 다 시말하면 理想郷의 構圖라는 새 씨앗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行列이나 年齡의 順次에 依해 配分되던 閥閥의 勢道라는 矛盾的인 保守性에서 脫皮하고 力量있는 젊음으로 짜여진 새로운 指導階層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기에 마침내 그러한 것이 이 作品에 浮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指導階層의 少壯化는 實로 後期 社會人들의 一角에서 念願하던 그들의 utopia的 構圖의 一環이라 할 만하다.

6. 結 語

위에서 考察한 바를 通하여 筆者는 다음의 몇 가지 點을 指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李朝時代의 한글小說은 大部分 그 作者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李朝後期の 長篇小說에는 그 作品 末尾에 그 作品을 쓰게 된 動

機와 作者에 대해 常套的인 言及을 붙이고 있다. 作品의 創作動機에 대해서는 別로 神經을 쓴 것이 없다 할 수 있으나 그 作者에 대한 言及은 우리의 關心을 끌게 된다. 그러나 筆者는 그 記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虛構的인 것을 事實談인 양 꾸밈으로써 讀者들에게 強한 興味를 주기 위한 한 手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作品은 李氏家 乃至는 그 姻戚들을 大學 朝廷에 參與케 하고 있고 또 그 勢力을 主軸으로 하여 이른바 三代의 世道性 政治 具現을 試圖하고 있다. 이것은 趙光祖나 宋時烈 등에서 볼 수 있는 世道性과 連結지을 수 있는 一面이 있다. 이러한 示唆는 百姓의 安寧과 福祉를 云謂하면서도 其實은 王族이거나 아니던 一部 敎權層만을 위하는 것으로 一貫되었던 當時의 矛盾된 政治風土에 대한 抵抗이라 할 것이다.

세째, 이 作品에 浮刻된 指導階層의 少壯化는 當時의 老人王國的 無氣力한 保守性에서의 脫皮를 意味한다. 國家間的 交流가 活潑해지기 始作하던 때를 맞아 國際的인 見聞의 幅을 넓히던 當時의 良心的인 知識階層이 個人的인 能力을 度外視하고 自家의 利益에만 泊沒하던 敎權階層의 非合理的인 人事 處理에 대해 反撥함은 當然之事라 할 것이다.

以上の 몇 가지 事實들은 當時 指導階層의 隊列에 끼일 수 있을 與件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隊列에서 脫落하지 않을 수 없었던 一部 士類들이 그들 나름대로 꿈꾸고 있던 utopia的 構圖의 一環을 本 作品에 反映하고 있다 할 것이다.